



제주 정운이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감바 오사카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제주는 2-0으로 승리해 대회 16강에 합류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주 창단 첫 16강…K리그 자존심 지켰다

정운·황일수 골…감바오사카 2-0 제압
ACL 조별리그 3승1무2패 조 2위 확정
수원은 광주U와 무승부…16강 좌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는 아시아 각국 프로리그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K리그는 지난해 전북현대가 정상에 오르는 등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올해 K리그 팀들은 조별리그부터 빠져거렸다. F조의 울산 현대는 무양통 유나이티드(태국)와 가시마 엘프

러스(일본), F조의 FC서울은 우라와 레드빌과 상하이 상강(중국)의 기세에 밀려 일찌감치 16강행이 좌절됐다. 이 가운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의 자존심을 지켰다.

제주는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최종 6차전에서 감바 오사카(일본)를 2-0으로 눌렀다. 3승1무2패(승점10)를 기록한 제주는 같은 시간 애블레이드 유나이티드(호주)를 1-0으로 꺾은 장우 수닝(5승1패·중국)에 이어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지난 2011년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의 설움을 맛봤던 제주는 6년 만에 나선 아시아 무대에서 팀 창단 이후 처음

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맞았다. 제주는 16강서 F조 1위를 다투는 우라와 레드 혹은 상하이 상강과 8강전을 치른다.

제주는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최근 2경기에서 전북 현대(4-0 승)와 상주 상무(4-1 승)를 상대로 총 8골을 뽑아 연승행진을 달린 상승세를 이어갔다.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인 제주는 전반 29분 기습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골 에어리어로 침투한 수비수 정운이 마르셀로의 패스를 받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전반을 1-0으로 앞선 제주는 후반에도 마그노, 안현범, 이창민, 권순형 등이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하며 추가골을 노렸다. 그러던 후반

21분 권순형의 롱패스를 받은 황일수가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오른쪽 중거리 슈트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사실상 16강행을 확정짓는 골이었다. 제주 조성한 감독은 황일수의 골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환호했다. 제주는 감바 오사카의 막판 공세를 잘 막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G조의 수원 삼성은 광주U 에버그란데(2승4무·중국)와의 원정경기에서 2-2로 비겨 조 3위(2승3무1패)에 머물렀다. 수원은 이스턴SC(홍콩)를 4-0으로 꺾은 가와사키 프론탈레(2승4무·일본)에 16강 진출권을 내줬다.

서귀포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첼시, 1승 추가 땀 챔피언…미들즈브러 강등

통신원 리포트

EPL 35R 미들즈브러전 3-0 완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두 첼시FC가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뒀다.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6~2017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와의 35라운드에서 3-0으로 압승을 거두고 리그 3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승점 84(27승3무5패)로 2위 토트넘(23승8무4패·승점 77)에 7점차로 달아났다. 남은 경기에서 1승만 더 거두면 리그 자격 우승을 결정짓는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이날 패배로 승격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로 강등이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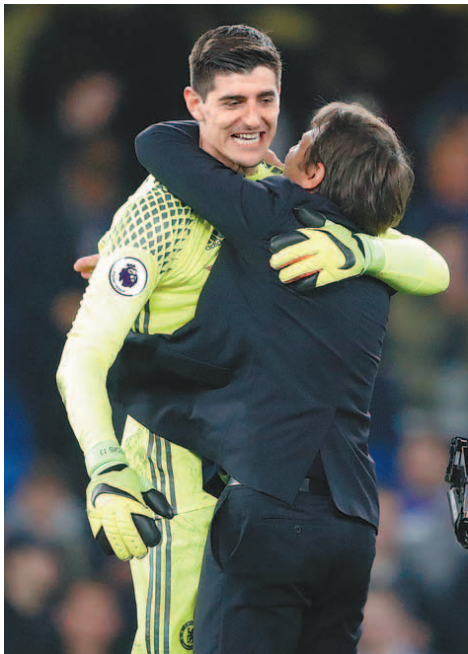
전반 23분 디에고 코스타가 이번 시즌 자신의 리그 20호골을 폭발하며 선제골을 작렬했다. 첼시 팬들은 '디에고! 디에고!'를 연호하며 코스타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한 관중은 '디에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중국으로 가지 마! (Diego we love you! Don't go to China!)'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중국 슈퍼리그로의 이적설이 보도되자 그의 중국행을 말리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9분 뒤 마르코스 알론소의 추가골이 나왔고 후반에 네마냐 마티치의 썸머골까지 터지자 첼시 팬들은 우승을 확신하는 듯 경기 종료 때까지 뜨거운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리그 챔피언을 위해 일어서라!', '우리가 리그 1등이다'라는 가사가 담긴 노래도 반복했다. 경기 후 콘테 감독은 "매우 기쁘다. 선수들이 아주 좋

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중요한 승점 3점을 쟁겼다. 토트넘이 패한 상황이라 우리가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우승까지 한 단계 다가섰는데 잘 쉬고 다음 웨스트브롬전을 잘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 강등이다. 현지 언론은 골 결정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리그에서 득점에 실패한 경기가 무려 16경기나 된다. 큰 기대를 품고 입대해 알바노 네그레도는 맨체스터 시티와 발렌시아(스페인) 시절 보여줬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미들즈브러 스티브 아그뉴 감독은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떠나게 돼 아쉬움이 크다. 승리가 부족했고 경기를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득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런던 홈경기에서 미들즈브러를 3-0으로 꺾고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자격 우승에 1승만을 남긴 첼시 안토니오 콘테(오른쪽) 감독이 무실점 선방을 펼친 골키퍼 티보 쿠르토와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다. 런던 | AP뉴시스

뮌헨의 뻔한 우승…그래서 지루했다고?

알로 분데스리가

뮌헨 독주 "재미 없다" 주장에
"약체의 반전·강등싸움 볼거리"

이번 2016~2017시즌 분데스리가에선 신생구단 RB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가 한동안 큰 관심사였다. 올 시즌 전까지 4시즌 연속 우승했던 뮌헨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DFB포칼(독일축구협회컵) 등 여러 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했다.

분데스리가 다른 팀들은 뮌헨의 아성을 쫓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뮌헨은 항상 '넌을 수 없는 벽'처럼 리그에서 군림했고,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분데스리가의 부정적인 요소를 자아냈다. 한 팀의 일방적인 독주는 리그를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는 뮌헨을 좋아하는 축구팬들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그것이 분데스리가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뮌헨의 독주는 뮌헨이 강팀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분데스리가 타 팀들은 지루한 경기를 한다'는 이른바 '확증편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독일의 유명지 '엘프 프라운데(Elf Freunde)'는 최근 '불평은 그만하자, 우리는 우리 각자의 팀과 함께 즐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뮌헨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만이 분데스리가를 즐기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항상 풍성한 이야기는 있기 마련'이라며 '리그 우승은 예측 가능했고 뻔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누가 라이프치히와 SC프라이부르크의 선전 그리고 하위권의 치열한 강등싸움을 예상했는가'라고 덧붙혔다. 분데스리가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항상 그 시대를 호령했던 팀들은 있기 마련이었다. 보루시아 뉘른베르크다 바르샤바 살게04 그리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도 그러했고, 리그 우승뿐만이 아닌 안에서 펼쳐지는 순위싸움도 리그를 보는 요소 중 하나였다.

엘프 프라운데는 더불어 '우리는 왜 항상 불평하는 입장으로 남길 바라는가'라며 '축

구를 볼 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 팬들에게 독일의 축구가 상대적으로 지루한 리그로 비춰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독일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일 팬들은 부정적 시각과는 별개로 리그를 응원하고 있다. 인기에 따라 자신의 팀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과 함께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데스리가 팬들은 대세논리에 치우치지 않으며 중심을 잡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지지한다. 엔지 모르게 독일인의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축구팬 문화가 성숙해 보이는 이유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자신의 소신대로 팀을 응원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인지 보인다.

클렌(독일) | 윤영신 통신원

사커 토크

U-20 월드컵은 정보전

체력훈련·전략 다양화 등 자체 강화로는 부족
상대팀 훈련장에 분석관 파견 '동향까지 체크'

현대의 전쟁은 '정보전(情報戰)'이다. 우리의 정보 체계는 보호하되, 상대의 모든 부분을 살피고 장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스포츠도 그렇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적을 제압해야 내가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한국축구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5월을 앞두고 있다. 20일 개막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점차 다가온다. 신태용(47)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마지막 강화훈련을 진행 중이다. 체력을 극대화하고, 조직을 다지고 플랜A·B를 아우른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를 알고 최상의 전략을 구축함과 동시에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지피(知彼)'다. 경쟁국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승산을 높일 수 있다. 대회 조별리그에서 우리와 같은 A조에 편성된 기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은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빨리 본선 체제에 돌입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다. 8일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해 시차와 환경 등 아시아 적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역시 본선진출에 성공한 베트남 U-20 대표팀과 10일 평가전을 치른 뒤 12일 2018자카르타아시아잔개임을 겨냥해 꾸려진 베트남 U-22 대표팀과도 스파링을 펼칠 계획이다. 물론 대한축구협회도 경쟁국들의 동향을 낚아 이 체크하고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영상 등 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자국 리그에서 뛰는 19명을 최종엔트리(21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베트남 캠프에 대한 분석이 필수다. 더불어 협회는 조만간 일본에 도착할 잉글랜드 U-20 대표팀 훈련캠프에도 측각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리만 '정보전'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개최국의 스케줄은 일찌감치 공개됐다. 11일 우루과이전(청주), 14일 세네갈전(고양)에 상대국 코칭스태프와 전력분석관 등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우리 베스트 라인업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감출 것은 최대한 감출 필요도 있다. 개막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눈치싸움도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리그도 쓰리백이 대세?

분데스리가·EPL, 선두권 팀 활용 성과
국내 전북·수원 등 쓰리백 변화 눈길

막을 내려가는 유럽축구에서 2016~2017시즌 가장 큰 화두는 쓰리백이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초반 라이프치히, 호펜하임, 쾰른 등 쓰리백을 가동한 구단들이 리그에서 선두권에 나서는 파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FC가 쓰리백을 앞세워 독주하고 있다. 첼시의 대항마 토트넘도 최근 쓰리백 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에서도 쓰리백을 구사하는 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현대도 이번 시즌 포백과 쓰리백을 혼용하고 있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지난해까지 포백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했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리백을 활용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 쓰리백을 활용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수원삼성도 아예 쓰리백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변화를 눈여겨 본 서정원 감독은 공격적인 쓰리백을 실험하고 있다.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며 공수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외에도 포백을 지향했던 광주FC와 포항 스틸러스가 올해 쓰리백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대구FC는 아예 쓰리백 중심의 포메이션을 선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K리그에서는 쓰리백이 수비적인 전술로 인식됐다. 수비를 펼칠 때 측면 윙백들까지 5명이 수비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까지는 K리그에서 쓰리백을 활용하는 팀들이 라인을 많이 내려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쓰리백을 활용하면서도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공격에 숫자 동원을 많이 하기 위해 애쓰는 팀들이 늘어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유럽축구의 영향도 적지 않다. 지난 시즌 중반까지 FC서울의 지휘봉을 잡았던 최용수 감독은 2015년과 2016년 초반 쓰리백으로 수비시스템을 전환해 수비 안정과 동시에 많은 득점으로 재미를 봤다.

유럽축구에서는 쓰리백으로 웃은 팀도 있지만 시즌 막판까지 쓰리백을 고수하다 무너진 팀도 나오고 있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선 어떤 팀이 쓰리백 카드로 성공할지 주목된다. 최용성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